

2023. 9. 24. 오전 10:00, In-Person, 전교인 가을 야외 예배,
블랙스버그 한인 교회 주일 예배

설교: 임동진

본문: 사무엘상 1 Samuel 7:12-14

제목: 하나님이 주신 평안

설교 7 분, 3 페이지, p11-14-

본문 읽기

(표준새번역) 7:12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셴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도와 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

(ESV) 7:12 Then Samuel took a stone and set it up
between Mizpah and Shen. He named it
Ebenezer, saying, "Thus far the Lord has
helped us."

13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주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
주셨다.

13 So the Philistines were subdued and they
stopped invading Israel's territory.

Throughout Samuel's lifetime, the hand of the Lord was against the Philistines.

14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 간 성읍들, 곧 에그론과 가드 사이에 있는 성읍들도 이스라엘에 되돌아왔으며, 성읍에 딸린 지역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되찾았다. 이스라엘은 또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냈다.

14 The towns from Ekron to Gath that the Philistines had captured from Israel were restored to Israel, and Israel delivered the neighboring territory from the hands of the Philistines. And there was peace between Israel and the Amorites.

✓ 주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20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자!'고 외칩니다. 하나님을 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도 있고, 세상도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물론 하나님도 믿으면서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나름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주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상식으로 본다면, 이럴 때 일이 잘 풀려야 하잖아요!
그러나 그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블레셋이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도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트리려고 할 겁니다.

그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 후, 12 절. 사무엘은 큰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셴 사이(그 전쟁터)에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고백하며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도움의 돌)이라고 붙입니다.

(표준새번역) 7:12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셴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도와 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

(ESV) 7:12 Then Samuel took a stone and set it up between Mizpah and Shen. He
 named it Ebenezer, saying, "Thus far the Lord has helped us."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그 상황을 지나왔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거기가 여러분의
 에벤에셀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에벤에셀’은 뒤를 돌아보며, “그래 하나님이 그때
 ‘거기’까지 도우셨지” 하며 감사하는 것 뿐 아니라,

✓ 주께서 지금도 도우신다: 평안과 회복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도우신 것이 아닙니다. 13 절. 블레셋 사람들이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13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주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 주셨다.

13 So the Philistines were subdued and they stopped invading Israel's territory. Throughout Samuel's lifetime, the hand of the Lord was against the Philistines.

14 절. 과거에 빼앗겼던 땅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협이었던 아모리 사람들과의 갈등과 전쟁도 멈춥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하거나 애써서 이룬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평안과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14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 간 성읍들, 곧 에그론과 가드 사이에 있는 성읍들도 이스라엘에 되돌아왔으며, 성읍에 딸린 지역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되찾았다. 이스라엘은 또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냈다.

14 The towns from Ekron to Gath that the Philistines had captured from Israel were restored to Israel, and Israel delivered the neighboring territory from the hands of the Philistines. And there was peace between Israel and the Amorites.

하나님이 그때도 도우셨고, 거기까지 도우셨듯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에벤에셀 돌을 기억해 내는 것이
'감사'라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평안'(shalom)입니다. 지금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노력의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고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돕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야외 예배로 모인 겁니다. 이 행사 준비를 돕고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연인으로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돕고

계시기 때문이며, 내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셨는데, 나는 이 세상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거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그룹에서 나눌 질문들

(2023.9.24.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사무엘상 7:12-14)

1.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도와 주셔서 무사히 그 상황을 지나왔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2.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세워 '에벤에셀'(도움의 반석)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의미를 담은 나의 에벤에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없다면, 지금 정하셔도 좋습니다)
3.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과 '회복'을 내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 줍시다.